

네이버 매출 '12조', 카카오 '8조' 불황에도 인터넷 투톱 체제 견고

네카오, 지난해 성적표 '우수'

네이버, 창사來 최대 실적 기록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성장 견인

카카오, 플랫폼 광고 등 회복세
선택과 집중 전략 통해 수익성 개선

국내 인터넷 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며 '인터넷 투톱' 체제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네이버는 연 매출 12조원을 넘어섰고, 카카오는 8조원대 매출을 회복하며 반등의 신호를 분명히 보여줬다.

2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나란히 의미 있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경기 둔화와 플랫폼 규제, AI 투자 부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숫자로 성과를 증명하며 국내 인터넷 산업의 중심축을 다시 세웠다는 평가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조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서치플랫폼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커머스, 콘텐츠, 클라

NAVER
kakao

우드, AI 사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커머스 부문은 거래액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됐다. 북미와 일본 시장에서 유료 이용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IP 기반 수익 구조가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공공·금융·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수주를 늘리며 AI 인프라 사업의 존재감을 키웠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매출 8조원대를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광고 시장 둔화와 계열사 구조조정 여파로 한때 성장세가 꺾였지만, 플랫폼 본업의 체력이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광고와 커머스 거래

액이 회복세를 보였고, 콘텐츠 부문도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했다.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카카오톡·광고·커머스·AI 등 핵심 영역에 자원을 재배치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AI 역시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플랫폼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접근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실적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 국내 플랫폼 규제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사업 모델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투자 확대 국면에서 현금 창출력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은 향후 전략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실적으로 국내 인터넷 플랫폼이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올해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와 수익성 관리의 균형이 '투톱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지난달 24일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진행된 SLL 현장모습.

/SOOP

SOOP·SLL 주최리그, 시청자 600만명 모여

비시즌 기간에도 이례적 성과 보여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비시즌 기간 진행된 SOOP·SLL 주최 리그가 누적 시청자 6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정규 시즌이 아닌 비시즌 대회가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이례적으로, e스포츠 콘텐츠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OOP과 SLL이 공동 기획·운영한 LCK 비시즌 리그가 누적 시청자 수 600만 명을 넘기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정규 리그 공백기에도 팬들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숫자로 증명한 셈이다.

이번 비시즌 리그는 기존 공식 대회

와 달리 실험적 포맷과 자유로운 연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팀 구성과 경기 방식에 변주를 주고, 선수 인터뷰와 비하인드 콘텐츠를 강화해 '경기 외 재미'를 확장했다는 평가다. 중계 역시 단순 경기 송출을 넘어 토크·분석·예능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성과는 수치로 드러났다. SOOP 플랫폼 내 동시 시청자 수는 물론, 클립·다시보기·2차 콘텐츠 소비까지 포함한 누적 이용 지표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공은 LCK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비시즌은 팬 관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공백기로 여겨졌지만, 별도의 콘텐츠 리그를 통해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빛나 기자

SKT, 1348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제기

'역대 최대' 과징금… 개보위에 소 제기 산정방식 형평성·과도함 이유 들어 사고 후속조치·재발방지 노력 입장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결국 법정 싸움을 택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 시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업은 처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SKT는 작년 10월 말 의결서를 받은 뒤 고심 끝에 시한 직전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4월 발생한 내부 시스템 해킹 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SKT 가입자 약 2324만 명에서 최대 27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SKT의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인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받은 과징금 합계액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SKT가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형평성과 과도함에

있다는 분석이다. 개보위는 이번 과징금을 산출할 때 SKT의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2023년 3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출 시스템 관련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68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해킹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실질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SKT 측의 주요 논거다.

SKT는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보호 서비스 제공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으며, 정보보호 혁신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SKT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카나나2', 고성능·효율화 향상

총 4종 신규모델, 오픈소스로 공개

카카오가 20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언어모델 '카나나(Kanana)-2'를 업데이트하고, 총 4종의 신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첫 공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대규모 성능 개선으로, 고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에 공개된 카나나-2 모델은 엔비디아 A100 수준의 범용 GPU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최적화했다. 최신 초고가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중소기업과 학계 연구자도 비용 부담 없이 고성능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핵심 기술은 전문가 혼합 방식(MoE) 아키텍처다. 전체 파라미터 규모는 320억 개이지만, 실제 추론 과정에서는 30억

개만 활성화해 연산 효율을 크게 높였다. 카카오는 MoE 학습에 필요한 커널을 직접 개발해 성능 저하 없이 학습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다.

학습 구조 역시 고도화했다. 사전 학습과 사후 학습 사이에 미드 트레이닝 단계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 지식을 잊는 치명적 망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리플레이 기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추론 능력을 추가하면서도 한국어 성능과 일반 상식 이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카카오는 기본 모델을 포함해 지시 이행 모델, 추론 특화 모델, 미드 트레이닝 모델 등 총 4종을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연구 활용도가 높은 미드 트레이닝 탐색용 모델을 함께 제공해 오픈소스 생태계 기여도도 높였다.

/최빛나 기자

'국가대표 AI'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 참가

모티프테크놀로지스·트릴리온랩스
스타트업 추가 공모 참여 공식화
네이버, NC AI, 카카오 불참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패자부활전)가 대기업의 이탈과 실력과 스타트업의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I 스타트업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가 독파모 추가 공모 참여를 공식화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고성능 대형 언어모델(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모두 개발한 경험을 앞세워

"한국의 기술 독자성을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공개한 '모티프 12.7B'는 글로벌 성능 지수(AAII)에서 미스트랄 라지 3등 글로벌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함께 출사표를 던진 트릴리온랩스 역시 강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개발 주역인 신재민 대표가 설립한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700억 개(70B)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 '트리(Tri)-70B'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특히 허깅페이스의 '한국 AI 오픈소스 히트맵'에서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

내 기업 중 3위를 기록할 만큼 기술적 실체가 뚜렷하다. 단순히 기존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강점이다.

반면,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대기업들은 대거 발을 뺐다. 1차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재도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카카오 역시 불참을 확정했다. KT 또한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이탈은 '국가대표 AI'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보다 탈락할 경우 입을 이미지 타격과 과도한 경쟁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서현 기자

LG U+,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 개발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맞손'

LG유플러스는 통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함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통신사가 가진 네트워크 기능을 표준화해 외부 개발자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로, 이번엔 개발한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이라는 창구를 통해 외부에 전달된다. 외부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통신사의 검증된 기능을 API 형태로 쉽게 도입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오픈 API 플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랫폼은 개인정보와 금융 보안을 강화하는 API(단말 번호 인증, SIM 변경 정보, 단말 위치 정보, 단말 상태 정보, 단말 기기 변경 정보)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통신 품질을 높이는 'QoD(Quality On Demand)' 등을 API로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